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면담

- 일 시: 2017.9.13.(수) 11:00

- 면담자: 교육감협의회측 사무국장 선계훈, 방과후교육담당 장학사 안현석

: 법인연합회측 사무처장 김지섭, 서울지회장 양순정.

□ 논점: 2017년 9월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6개 의결안 중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하였다는 발표.

□ 질의

1.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의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의견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답변: 회의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지만, 돌봄교실을 학교에서 확대 강화시킨다는 정부 안에 대해 재정, 인력, 시설 부족등으로 지금에서 더 이상 확대하여 수용하기에 부담이 크다. 그로인해 나온 의견으로 보면 되겠다. 이는 인수위 때부터도 확대에 대해 우려했고 논의가 되었던 것인데 그에 관한 연장선으로 보면 되겠다.

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회의 의결안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까? 전국 전담사들이 반대하고 있고, 학교안에서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와도 상충되는 안인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답변: 협의회 내용은 교육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지자체이관이 국정과제와 상충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학교입장에서는 학교시설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운영체제를 학교밖 지자체로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다.

3.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이관한다면 현재 무기계약된 전담사들의 고용승계 계획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로조건 상향 조정 및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텐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아무 대안도 없이 보도될 수 있습니까?

답변: 회의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얘기는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았다. 단지, 돌봄교실을 확대 강화한다는 국정과제에 대한 부담으로 운영체제 변경과 근거규정등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시도교육청의 목소리 정도로 보면 되겠다. 현실적으로 이미 자리잡아가는 돌봄교실을 학교밖으로 모두 이동시키거나 전담사들에 대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이관시킬수 있을지도 노동법상 맞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의견 자체로 봐 주면 될 것 같다.

4. 현재, 교육감을 사용자로 해서 무기계약과 호봉제도입 및 체제 안정을 요하는 전국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 사회서비스공단 외 지자체 이관 계획을 백지화 시키고 학교안에서 더 내실을 기해야 책임 있는 교육감의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 이관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답변: 연합회와 노조에서도 목소리를 내듯이 교육감을 통해 학교운영자들도 목소리를 냈다고 보면 되겠다.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히려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다양한 돌봄교실운영을 잘 자리잡게 하기 위함이므로 좋다고 본다. 연합회가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이하 담당자와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를 위해 서로 노력하면 좋겠다. 끝.